‘길바닥 종회’ 태고종, 또 ‘내홍’

집행부–反집행부 대결구도, 2015년 내홍 재연 우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태고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이를 비판하는 중앙종회 및 지역종무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초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였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벌인 폭력사태와 같은 내분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편백운)과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12월 5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총무원 측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했으며, 결국 중앙종회는 청사 앞 골목에서 노상 회의를 개원했다.

총무원 측은 “종회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종회가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종회의장이 연기 요청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기회 대신 3원장과 종회 분과위원장, 총무원 부장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회 측은 “한 달여 전부터 종회 일정을 공지하고,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종회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39명이 참석한 종회는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증빙 보고 △종법 제·개정 △호법원 사무처장 임명동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지만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총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

12월 5일 제316회 중앙종회
총무원 청사 앞 도로서 열려
현 집행부 행정절차 문제제기

집행부 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결의
집행부 “면책특권 위한 수단”

종회는 교육기금 전용 시 종회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 행정절차를 비롯해 각종 특별감사 결과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기회 회기를 내년 3월 15일까지 약 100일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에 대한 총무원 규정부의 소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집행부와 종회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창종 초유의 불미한 사정이 생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집행부의 예산안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 이면도로에서 중앙종회가 제316회 정기회를 개원한 모습.

이 같은 노상 종회와 관련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서 “종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앞서 이뤄졌다. 특히 서로 규정부와 검찰 고발이 얽혀 현행법에 따른 결과가 나온 뒤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총무원이 보낸 공문을 종회의장이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어 종회가 회기를 100일간 연장한 것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계류 중인 종회의장이 면책특권을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총무원은 결코 종회의원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갈등의 주체는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였지만 현재 태고종은 사실상 집행부와 반집행부의 세력대결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선출직인 대전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직권면직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으며, 법안 스님 상좌인 연수 스님에 대한 봉서사 주지 해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다. 현재는 지역종무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개개인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태고종의 내홍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나아가야할 방향은?

12월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서는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발전 방안(박종한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제19교구본사 승려복지 시행 내용(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불교계 전략(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 등의 글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미수 스님(동화사 기획국장), 묘장 스님(중앙종회의원), 지현 스님(대치노인복지센터 관장), 원묵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청아 스님(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사무국장), 김명순 부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 특별교구, 필요성부터 진단”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서 공청회 공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회 현안인 종법기구화와 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 진단에 나설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혜원)는 12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오는 1월 예정된 집행부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이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선적으로 비구니회의 전체 의견을 물어 찬반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118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 포함 75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아직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1월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 “비구니스님들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전체 대중 의견을 묻는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구니 종회의원 진명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비구니들을 위해 공약을 발표하셨지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지 의견을 묻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럼이든 공청회든 전체 의견이 모이는 것에 맞춰 종회의원들의 활동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비구니 종회의원 정관 스님 역시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구니회 내에서 TF팀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비구니 종회의원 보궐선거와 차기 회장선거가 있는 만큼 심도있게 논의해 비구니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위는 회의서 백천문화재단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원 인증교육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로 인해 공석이 된 부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기획실장에 서울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 교육부장에 포천 화원사 총무 유화 스님, 사회부장에 인천 청련사 주지 혜성 스님이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2월은 거울입니다

12월입니다. 2018년 12월도 반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잘 살았나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새해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행여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이 되리니’

서산대사의 선시 ‘눈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왜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지, 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발자국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업이 그대로 찍힌 업경대입니다. 올 한해 자신의 발자국을 뒤돌아 보면 자기업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았나. 이웃에게 보시를 했나. 계를 잘 지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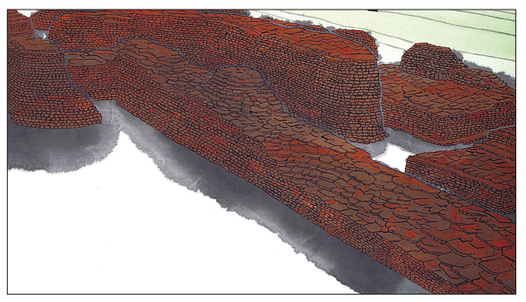
이렇게 업을 떡가루 치듯 체로 걸러내면 올 한해 삶의 손익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 손익은 내년을 잘 살게 하는 밑천입니다. 선업은 더욱 북돋우고 악업은 마음을 바꾸고 행이 달라지면 선업이 됩니다. 12월은 반성과 참회와 감사 속에 신년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 12월을 송년모임의 달로 여겨 이 모임 저 모임 분주하게 다니면서 모임의 횟수를 과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들뜬 연말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외로워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송년모임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끼리 조촐하게 갖고, 외롭고 추운 곳에 온정을 나누면서 올해를 마무리 하면 새해가 따뜻하고 밝게 시작될 것입니다.

인디언의 달력을 보면 부족에 따라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마음속의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확장되는 비움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가진 것을 털어내는 무소유도 침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도 물건도 비우는 자리입니다. 시시비비도 떠나고 갈애도 내려놓은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으로 뚝뚝 부러지는 겨울나목을 바라봅시다.


반조하는 거울 그림 · 조향숙

발자국 비춰보며 송구영신
참회 감사 용서로 관계 원만
“들뜨지 말고 온정 나누자”

* 12월은 1년을 총체적으로 반조하는 거울입니다. 참회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도량삼아 몸과 입과 뜻으로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었습니다.

그 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손익계산을 하면서 내가 지은 허물을 참회로 말끔히 씻어내어 업장이 소멸될 때 올 한해 총결산이 마무리 됩니다.

나홀로 참회가 아니라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나를 불편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이들에게 연말에 연하장이나 전화로 진심을 담아 인사하면 관계가 원만해지거나 더욱 돈독해 집니다. 지금까지의 나와 인연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여기서 내 삶은 다시 새로워 집니다.

12월의 거울을 맑게 닦아 청정심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 할 때 진정한 송구영신이 됩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